

##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요인에 따른 요구\*

정 소 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육연구사

---

### 《요약》

---

이 연구는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과 요구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전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404명의 장애학생이다.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고르게 표집하였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학과 결정 요인, 준비 시기, 정보 수집, 정보 제공자,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사교육, 지원 프로그램, 진학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알아보았고, 대학진학 준비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장애학생은 유형별로 각기 다른 경험과 어려움을 나타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학 상담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발달장애학생은 예비대학 체험캠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우선 제공되어야 할 대학진학 지원으로 시각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보제공과 비장애인과의 통합생활 적응훈련을, 청각장애,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보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대학진학 준비 개선으로 시각장애학생은 대학 진학지도 의무시행, 장애학생 대학진학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접근 의무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대학 진학지도 의무시행을, 발달장애학생은 장애학생 대학진학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접근 의무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을 전수 조사 하지 않았고, 발달장애학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응답한 경우가 포함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교사와 부모가 진학지도를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장애대학생, 대학진학,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

\* 이 논문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용역과제로 수행한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nsouyoung@knuw.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대학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된 1995년이라 할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0). 이후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수교육대상자 대학특별전형 제도가 시작된 당시에는 8개 대학에 113명의 장애학생이 입학하였고, 2015년에는 116개의 대학에 1,377명이 입학하였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5). 법적·제도적 정책은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 증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은 모두 5,909명인데, 이 중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962명(16.3%)이고, 2012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은 모두 6,139명인데, 이 중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014명(16.5%)이었으며, 2015년은 7,111명의 고등학교 졸업 장애학생 중에서 1,133명(15.9%)이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비장애학생의 대학 진학률에 비해 여전히 낮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비교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동일한 학교교육으로는 대학 진학률이 뒤쳐질 수밖에 없어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김형일, 2012). 장애학생은 그들이 처한 여건과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개별적인 잠재력을 평가받아야 하고(오중운, 2008; 이지현, 2008),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한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근간이 된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이 대학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도록 제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은 현재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있는 상황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면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장애학생들은 학교에서 대학 입학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만 제공되는 대학진학 지원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나수현, 2003; 서선진, 2010), 국가 및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정의석, 이해균, 김정현, 2011). 학교에서 대학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대학

입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학진학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희망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미진학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학생은 인지 수준이 낮아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박영근, 김정현, Hosp, 2013) 대학 입학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고등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이효정, 이영선,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박은혜, 2011; 최성규, 2012)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방안 마련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발달장애 특성상 중요한 지원자인 부모에게 대학진학 및 입학 정보를 제공하여 발달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Heslop & Abbott, 2007). 지적능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발달장애학생을 고등교육에서 제외시킬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조성혜, 2014).

교육부는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에서 대학특별전형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학생의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하는 등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교육부, 2013). 정부가 활성화하고자 하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확대 정책은 많은 기초연구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장애 고등학생의 대학진학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 준비과정 실태와 대학진학 요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학진학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는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과 요구를 알아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요인에 따른 요구는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대상

이 연구는 전국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한 장애학생이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를 포함하였다. 발달장애는 지적 능력 결함을 주장애로 제한하여 지적장애,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학생을 선정하였다. 발달장애는 스스로 조사지를 읽고 응답할 수 있는 학생과, 스스로 응답이 어려운 경우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표 1> 대상자 배경정보 단위 : n, %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계
성	남자	48(23.8)	35(17.3)	59(29.2)	60(29.7)	202(50.0)
	여자	52(25.7)	67(33.2)	41(20.3)	42(20.8)	202(50.0)
장애 등급	1급	29(42.6)	6(8.8)	23(33.8)	10(14.7)	68(16.8)
	2급	25(14.8)	66(39.1)	31(18.3)	47(27.8)	170(41.8)
	3급	21(19.4)	19(17.6)	23(21.3)	45(41.7)	108(26.7)
	4급	8(34.8)	8(34.8)	7(30.4)	0(0)	23(5.7)
	5급	2(20.0)	2(20.0)	6(60.0)	0(0)	10(2.5)
	6급	15(60.0)	0(0.0)	10(40.0)	0(0)	25(6.2)
고등 학교 유형	특수학교	42(35.9)	34(29.1)	17(14.5)	24(20.5)	117(29.0)
	특수학급	5(9.1)	3(5.5)	3(5.5)	44(80.0)	55(13.6)
대학 입학 유형	일반학교	53(22.8)	65(28.0)	80(34.5)	34(14.7)	232(57.4)
	일반전형	25(35.7)	31(44.3)	7(10.0)	7(10.0)	70(17.3)
	특별전형	74(23.1)	68(21.3)	87(27.2)	91(28.4)	320(79.2)
	기타	1(7.1)	3(21.4)	6(42.9)	4(28.6)	14(3.5)
대학 전공 계열	인문사회	61(28.1)	56(25.8)	67(30.9)	33(15.2)	217(53.7)
	자연과학	15(22.4)	14(20.9)	8(11.9)	30(44.8)	67(16.6)
	예체능	13(19.4)	14(20.9)	10(14.9)	30(44.8)	67(16.6)
	공학	3(18.8)	7(43.8)	3(18.8)	3(18.8)	16(4.0)
	의학	0(0.0)	1(33.3)	2(66.7)	0(0.0)	3(0.7)
거주지	기타	8(23.5)	10(29.4)	10(29.4)	6(17.6)	34(8.4)
	서울	43(34.4)	32(25.6)	32(25.6)	18(14.4)	125(30.9)
	경인	19(22.9)	15(18.1)	30(36.1)	19(22.9)	83(20.5)
	충청	13(23.2)	11(19.6)	6(10.7)	26(46.4)	56(13.9)
	전라	4(14.3)	9(32.1)	3(10.7)	12(42.9)	28(6.9)
	경상 강원	13(15.1)	31(36.0)	27(31.4)	15(17.4)	86(21.3)
총계		100(24.8)	102(25.2)	100(24.8)	102(25.2)	404(100)

전국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학생을 표집하도록 하였고, 성, 장애영역, 지역 변인을 고려하여 5명 이상 고르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2015년 장애대학생 전수조사 결과, 장애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상위 20개 대학의 장애학생이 선정되었고 장애영역별로 100명씩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청각장애와 발달장애학생이 2명씩 더 선정되어 총 404명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학생의 유형별 성, 장애등급, 고등학교 유형, 대학입학 유형, 대학전공 계열, 거주지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성은 고르게 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이 57.4%(232명),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보낸 학생이 29.0%(117명), 특수학급에 재학했던 학생이 13.6%(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유형은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79.2%, 320명), 대학전공은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3.7%, 217명). 거주지는 서울, 경상, 경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도구

이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장애학생 대학진학 준비과정 조사지」이다. 이 연구의 도구는 선행문헌을 분석하여 개발하였다. 김주영(2005), 장진주(2007), 한혜경(2009), 정의석(2010), 정윤우(2012), 정주한, 한경근(2012), 김경화, 조현정(2013), 김경화(2014)가 사용한 도구의 문항에서 추출하였다. 교수 및 교육연구사 등 6명이 초안문항을 6 차례의 안면타당도를 실시하여 장애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편적인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특수교육 전공교수 2인이 2회의 내용타당도를 실시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12명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도구는 대상자 배경정보 8문항,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 조사 3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도구의 주요 내용 및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도구의 내용 및 문항수

구분	내용	문항수
인적사항	성,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고등학교 유형, 대학입학 유형, 대학학과 계열, 거주지	8
대학진학 준비과정	대학(학과) 결정 요인, 대학진학 준비 시기 정보 수집, 지원 제공자,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 사교육,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진학 준비의 어려움, 대학진학 지원 요구	32

### 3. 절차

이 연구는 2015년 장애대학생 전수조사 통계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전국 대학을 권역별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권역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협조를 받아 서울권, 경인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5개로 구분하였다.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장애학생은 정보기기 지원 등을 통해 모바일을 많이 활용한다. 시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이 용이하게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도록 정보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15일 동안 실시하였다. 발달장애학생 부모는 서면조사가 익숙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메일과 우편발송을 통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연구의 목적, 결과의 활용계획,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과 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조사 시작 단계에 안내하였고, 연구에 동의를 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조사가 완료된 후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였다.

### 4. 자료처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자료처리 하였다. 조사 대상의 배경정보는 장애영역을 중심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알아보았다. 각 문항은 응답요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처리는 SPSS(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학진학 준비과정

#### 1) 대학(학과) 결정 요인

대학(학과) 선택 시 가장 크게 고려한 사항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장애학생은 대학 또는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명, 50.0%).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발달장애학생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대학 또는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학과) 선택 시 고려한 사항 (n, %)

구분	나의 적성	나의 장애	부모님의 권유	선생님의 권유	기타	계
시각장애	57(57.0)	18(18.0)	6(6.0)	9(9.0)	10(10.0)	100(24.8)
청각장애	48(47.1)	15(14.7)	16(15.7)	13(12.7)	10(9.8)	102(25.2)
지체장애	73(73.0)	10(10.0)	4(4.0)	9(9.0)	4(4.0)	100(24.8)
발달장애	24(23.5)	14(13.7)	32(38.2)	32(38.2)	0(0.0)	102(25.2)
총계	202(50.0)	57(14.1)	58(14.4)	63(15.6)	24(5.9)	404(100)

### 2) 대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대학(학과)를 선택할 때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대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n, %)

구분	나(자신)	부모님 (보호자)	선생님	친구	선배	기타	계
시각장애	57(57.0)	19(19.0)	14(14.0)	0(0.0)	3(3.0)	7(7.0)	100(24.8)
청각장애	35(34.3)	29(28.4)	23(22.5)	2(2.0)	2(2.0)	11(10.8)	102(25.2)
지체장애	57(57.0)	21(21.0)	14(14.0)	0(0.0)	0(0.0)	8(8.0)	100(24.8)
발달장애	26(25.5)	40(39.2)	34(33.3)	2(2.0)	0(0.0)	0(0.0)	102(25.2)
총계	175(43.3)	109(27.0)	85(21.0)	4(1.0)	5(1.2)	26(6.4)	404(100)

장애학생은 대학 또는 학과를 선택할 때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5명, 43.3%).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대학 또는 학과를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으나 발달장애학생은 부모님과 선생님의 영향이 대학 또는 학과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학진학 준비 시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진학상담, 진학정보 검색, 수능공부, 입시상담, 진학 박람회 참여 등)를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장애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진학 준비를 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187명, 46.3%). 청각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진학 준비를 시작한다고 많이 응답하였고, 시각장애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를 비교적 고르게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진학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대학진학 준비 시기 (n, %)

구분	고3	고2	고1	중학교	기타	계
시각장애	35(35.0)	32(32.0)	25(25.0)	5(5.0)	3(3.0)	100(24.8)
청각장애	65(63.7)	16(15.7)	9(8.8)	7(6.9)	5(4.9)	102(25.2)
지체장애	27(27.0)	37(37.0)	22(22.0)	2(2.0)	12(12.0)	100(24.8)
발달장애	60(58.8)	23(22.5)	16(15.7)	1(1.0)	2(2.0)	102(25.2)
총계	187(46.3)	108(26.7)	72(17.8)	15(3.7)	22(5.4)	404(100)

#### 4) 후배에게 추천하는 대학진학 준비 시기

후배에게 대학진학 준비(진학상담, 진학정보 검색, 수능공부, 입시상담, 진학 박람회 참여 등)를 언제 시작하라고 추천할 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후배에게 추천하는 대학진학 준비 시기 (n, %)

구분	고3	고2	고1	중학교	기타	계
시각장애	1(1.0)	8(8.0)	55(55.0)	32(32.0)	4(4.0)	100(24.8)
청각장애	6(5.9)	43(42.2)	36(35.3)	13(12.7)	4(3.9)	102(25.2)
지체장애	2(2.0)	28(28.0)	58(58.0)	9(9.0)	3(3.0)	100(24.8)
발달장애	7(6.9)	13(12.7)	58(56.9)	21(20.6)	3(2.9)	102(25.2)
총계	16(4.0)	92(22.8)	207(51.2)	75(18.6)	14(3.5)	404(100)

전체 장애학생은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학진학 준비시작 시기를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응답하였다(207명, 51.2%). 시각장애,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진학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청각장애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5) 정보 제공자

장애학생에게 대학진학 정보를 주로 제공한 사람은 누구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보를 스스로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49명, 36.9%).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스스로 대학진학 정보를 찾는 반면, 발달장애학생은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대학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대학진학 정보 제공자 (n, %)

구분	담임선생님	부모님	나 스스로	진학담당 선생님	기타	계
시각장애	21(21.0)	14(14.0)	45(45.0)	13(13.0)	7(7.0)	100(24.8)
청각장애	32(31.4)	17(16.7)	37(36.3)	6(5.9)	10(9.8)	102(25.2)
지체장애	38(38.0)	6(6.0)	48(48.0)	3(3.0)	5(5.0)	100(24.8)
발달장애	39(38.2)	39(38.2)	19(18.6)	3(2.9)	2(2.0)	102(25.2)
총계	130(32.4)	76(18.8)	149(36.9)	25(6.2)	24(5.9)	404(100)

### 6) 대학진학 정보 수집

장애학생이 대학진학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대학진학 정보 수집 (n, %)

구분	인터넷 검색	학교에 비치된 진학 서적	대학 방문	학원	기타	계
시각장애	82(82.0)	6(6.0)	4(4.0)	2(2.0)	6(6.0)	100(24.8)
청각장애	65(63.7)	23(22.5)	5(4.9)	6(5.9)	3(2.9)	102(25.2)
지체장애	85(85.0)	9(9.0)	4(4.0)	0(0.0)	2(2.0)	100(24.8)
발달장애	36(35.3)	13(12.7)	51(50.0)	1(2.0)	1(2.0)	102(25.2)
총계	268(66.3)	51(12.6)	64(15.8)	9(2.2)	12(3.0)	404(100)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다(268명, 66.3%).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인터넷 검색으로 대학진학 정보를 찾는 반면, 발달장애학생은 대학 방문을 통해 대학진학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7) 대학진학 상담자

장애학생이 대학진학 상담을 누구와 주로 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상담을 담임선생님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30명, 56.9%).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상담을 담임선생님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달장애학생은 담임선생님 뿐 아니라 부모 또는 보호자와 대학진학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대학진학 상담자 (n, %)

구분	담임선생님	진학담당선생님	부모(보호자)	계
시각장애	53(53.0)	26(26.0)	21(21.0)	100(24.8)
청각장애	66(64.7)	5(4.9)	31(30.4)	102(25.2)
지체장애	63(63.0)	6(6.0)	31(31.0)	100(24.8)
발달장애	48(47.1)	7(6.9)	47(46.1)	102(25.2)
총계	230(56.9)	44(10.9)	130(32.2)	404(100)

8) 학교교육과정의 대학진학 도움 정도

학교교육과정이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학교교육과정의 대학진학 도움 정도 (n,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시각장애	13(13.0)	22(22.0)	31(31.0)	31(31.0)	3(3.0)	100(24.8)
청각장애	9(8.8)	14(13.7)	54(52.9)	19(18.6)	6(5.9)	102(25.2)
지체장애	4(4.0)	29(29.0)	48(48.0)	15(15.0)	4(4.0)	100(24.8)
발달장애	17(16.7)	13(12.7)	29(28.4)	21(20.6)	22(21.6)	102(25.2)
총계	43(10.6)	78(19.3)	162(40.1)	86(21.3)	35(8.7)	404(100)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장애학생은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한 경우와(30.0%),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29.9%)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은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비슷한 응답 결과를 나타냈으나 지체장애학생은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높았고(33.0%), 발달장애학생은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2.2%).

9)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방법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7명, 44.3%), 대학입시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때문(28명, 26.4%), 교육과정은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21명, 19.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발달장애학생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체장애학생은 대학입시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은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같은 비율로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 11> 학교교육과정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n, %)

구분	대학입시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방법*	교육과정은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계
시각장애	9(25.7)	15(42.9)	7(20.0)	4(11.2)	35(33.0)
청각장애	8(32.0)	11(44.0)	2(8.0)	4(16.0)	25(23.6)
지체장애	7(36.8)	3(15.8)	7(36.8)	2(10.5)	19(17.9)
발달장애	4(14.8)	18(66.7)	5(18.5)	0(0.0)	27(25.5)
총계	28(26.4)	47(44.3)	21(19.8)	10(9.4)	106(100)

\* 점역, 수화통역, 보조기기 제공,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교육 등

10)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경험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사교육 경험과 유형을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사교육 경험 (n, %)

구분	사교육 경험			사교육 유형					계
	있다	없다	계	보충 학습*	방과후 학습**	장애 맞춤형 교육***	예체능 실기교육	기타	
시각장애	53(53.0)	47(47.0)	100(24.8)	28(52.8)	8(15.1)	2(3.8)	1(1.9)	14(26.4)	53(29.9)
청각장애	48(47.1)	54(52.9)	102(25.2)	26(54.2)	6(12.5)	5(10.4)	6(12.5)	5(10.4)	48(27.1)
지체장애	55(55.0)	45(45.0)	100(24.8)	36(65.5)	6(10.9)	1(1.8)	1(1.8)	11(20.0)	55(31.1)
발달장애	21(20.6)	81(79.4)	102(25.2)	2(9.5)	0(0.0)	0(0.0)	19(90.5)	0(0.0)	21(11.9)
총계	177(43.8)	227(56.2)	404(100)	92(52.0)	20(11.3)	8(4.5)	27(15.3)	30(16.9)	177(100)

\* 수업시간 이외의 수능 보충교육 등

\*\* 일과후의 수능 모의평가 등

\*\*\* EBS 문자(수화통역) 동영상 수강, 수준별 수능 학습반 등

장애학생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56.2%(227명),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43.8%(177명)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학생은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과 달리 사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1명, 79.4%). 장애학생의 사교육 유형은 보충학습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 실기 교육, 방과후 학습 순의 사교육 유형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사교육 유형으로 보충학습을 가장 많이 제공받았으나, 발달장애 학생은 예체능 실기교육을 사교육으로 가장 많이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n, %)

구분	학교교육으로 충분해서	장애 특성에 적합한 사교육 제공이 없어서	경제적 부담	필요성이 없어서	기타	계
시각장애	5(10.6)	25(53.2)	16(34.0)	1(2.1)	0(0.0)	47(20.7)
청각장애	9(16.7)	27(50.0)	4(7.4)	13(24.1)	1(1.9)	54(23.8)
지체장애	9(20.0)	16(35.6)	12(26.7)	8(17.8)	0(0.0)	45(19.8)
발달장애	4(4.9)	20(24.7)	39(48.1)	19(23.5)	0(0.0)	81(36.7)
총계	27(11.8)	88(38.6)	71(31.1)	41(18.0)	1(0.4)	227(100)

장애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사교육 제공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88명, 38.6%), 경제적 부담(71명, 31.1%), 필요성이 없어서(41명, 18.0%), 학교교육으로 충분해서(27명, 11.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사교육 제공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발달장애학생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313명, 77.5%).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발달장애학생은 사교육 필요성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으나, 지체장애학생은 필요하다(57명, 57.0%)는 응답과 불필요하다(43명, 43.0%)는 응답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응답에서 장애학생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158명, 50.8%), 전문학원(107명, 34.2%), 복지관(37명, 11.8%)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및 발달장애학생은 재학하는 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각장애학생은 전문학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6명, 54.8%), 지체장애학생은 재학하는 학교(24명, 42.1%)와 전문학원(23명, 40.4%)에 대한 사교육 제공 선호가 비슷한 응답을 나타냈다.

<표 14>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 (n, %)

구분	필요성			사교육 제공 희망기관				계
	필요	불필요	계	재학하는 학교	전문학원	복지관	기타	
시각장애	84 (84.0)	16 (16.0)	100 (24.8)	28 (33.3)	46 (54.8)	5 (6.0)	5 (6.0)	84 (26.8)
청각장애	86 (84.3)	16 (15.7)	102 (25.2)	45 (52.3)	15 (17.4)	24 (28.0)	2 (2.3)	86 (27.5)
지체장애	57 (57.0)	43 (43.0)	100 (24.8)	24 (42.1)	23 (40.4)	7 (12.3)	3 (15.3)	57 (18.2)
발달장애	86 (84.3)	16 (15.7)	102 (25.2)	61 (70.9)	23 (26.7)	1 (1.2)	1 (1.2)	86 (27.5)
총계	313 (77.5)	91 (22.5)	404 (100)	158 (50.5)	107 (34.2)	37 (11.8)	11 (3.5)	313 (100)

### 13)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유형은 <표 15>와 같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220명, 54.5%),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5.5%(184명)로 나타났다. 시각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청각장애학생과 지체장애학생은 참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이 참여한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유형은 적성검사(92명, 29.5%), 진학상담(91명, 29.2%), 진로박람회(52명, 16.7%), 진학반(39명, 12.5%), 예비대학체험캠프(37명, 11.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참여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학생은 진학상담, 적성검사, 진학반 등 다양한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청각장애와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학생은 시각장애학생과 비교하면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유형 (n, %)

구분	참여 경험			참여 유형*						
	있다	없다	계	진학 상담	적성 검사	진로 박람회	예비 대학체 험 캠프	진학반	기타	계
시각 장애	61 (61.0)	39 (39.0)	100 (24.8)	39 (33.6)	33 (28.4)	13 (11.2)	8 (6.9)	23 (19.8)	0 (0.0)	116 (37.2)
청각 장애	36 (35.3)	66 (64.7)	102 (25.2)	11 (21.2)	20 (38.5)	9 (17.3)	7 (13.5)	5 (9.6)	0 (0.0)	52 (16.7)
지체 장애	32 (32.0)	68 (68.0)	100 (24.8)	17 (28.8)	23 (39.0)	9 (15.3)	6 (10.2)	4 (6.8)	0 (0.0)	59 (18.9)
발달 장애	55 (53.9)	47 (46.1)	102 (25.2)	24 (28.2)	16 (18.8)	21 (24.7)	16 (18.8)	7 (8.2)	1 (1.2)	85 (27.2)
총계	184 (45.5)	220 (54.5)	404 (100)	91 (29.2)	92 (29.5)	52 (16.7)	37 (11.9)	39 (12.5)	1 (0.3)	312 (100)

\* 중복 응답 포함

#### 14)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n, %)

구분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참여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시각장애	13(33.3)	15(38.5)	11(28.2)	0(0.0)	39(17.7)
청각장애	25(37.9)	20(30.3)	16(24.2)	5(7.6)	66(30.0)
지체장애	30(44.1)	13(19.1)	21(30.9)	4(5.9)	68(30.9)
발달장애	20(42.6)	21(44.7)	6(12.8)	1(2.1)	47(21.4)
총계	88(40.0)	69(31.4)	54(24.5)	10(4.5)	220(100)

장애학생이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88명, 40.0%),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69명, 31.4%), 참여 필요가 없어서(54명, 24.5%)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시각장애학생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15명, 38.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장애학생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 15)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어려움

장애학생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은 <표 17>과 같다.

<표 17>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어려움 (n, %)

구분	대학 진학 정보 부재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 선택이 어려운 것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학교에서 대학 진학지도를 해주지 않는 것	기타	계
시각장애	30(30.0)	41(41.0)	10(10.0)	8(8.0)	11(11.0)	100(24.8)
청각장애	28(27.5)	44(43.1)	14(13.7)	10(9.8)	6(5.9)	102(25.2)
지체장애	33(33.0)	38(38.0)	15(15.0)	9(9.0)	5(5.0)	100(24.8)
발달장애	35(34.3)	17(16.7)	13(12.7)	37(36.3)	0(0.0)	102(25.2)
총계	126(31.2)	140(34.7)	52(12.9)	64(15.8)	22(5.4)	404(100)

장애학생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고(140명, 34.7%), 대학 진학 정보 부재(126명, 31.2%)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달장애학생은 학교에서 대학 진학지도를 해주지 않는 것과 대학 진학 정보 부재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 16) 장애로 인한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어려움

장애학생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알아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로 인해 대학 입학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187명, 46.3%). 또한 장애를 고려한 교과서나 수험교재가 없는 것(71명, 17.6%)과 정보 접근성 부재로 진학 안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도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학생 모두 대학 입학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2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표 18> 장애로 인한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어려움 (n, %)

구분	정보 접근성* 부재로 진학 안내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	장애를 고려한** 교과서 나 시험교재가 없는 것	대학 입학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날짜에 수학능력모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	기타	계
시각장애	14(14.0)	22(22.0)	28(28.0)	5(5.0)	31(31.0)	100(24.8)
청각장애	19(18.6)	26(25.5)	36(35.3)	4(3.9)	17(16.7)	102(25.2)
지체장애	15(15.0)	8(8.0)	63(63.0)	0(0.0)	14(14.0)	100(24.8)
발달장애	15(14.7)	15(14.7)	60(58.8)	12(11.8)	0(0.0)	102(25.2)
총계	63(15.6)	71(17.6)	187(46.3)	21(5.2)	62(15.3)	404(100)

\* 음성 또는 문자 안내, 수화통역 등  
 \*\* 점자 교재, 문자 또는 수화통역 교재, 수준별 맞춤형 교재 등  
 \*\*\* 장애학생 선발 인원, 특례입학 여부 등

2. 대학진학 준비요인에 따른 요구

1)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요구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장애학생이 요구한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은 진학상담(145명, 35.9%), 예비대학 체험캠프(124명, 30.7%), 적성검사(54명, 13.4%), 진로박람회(42명, 10.4%), 진학반 운영(28명, 6.9%)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진학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달장애 학생은 예비대학체험캠프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진학상담에 대한 요구도도 큰 차이가 없는 응답을 나타냈다.

<표 19>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요구 (n, %)

구분	진학 상담	적성 검사	진로 박람회	예비대학 체험캠프	진학반 운영	기타	계
시각장애	30(30.0)	22(22.0)	4(4.0)	26(26.0)	15(15.0)	3(3.0)	100(24.8)
청각장애	42(41.2)	15(14.7)	11(10.8)	24(23.5)	8(7.8)	2(2.0)	102(25.2)
지체장애	33(33.0)	11(11.0)	17(17.0)	29(29.0)	5(5.0)	5(5.0)	100(24.8)
발달장애	40(39.2)	6(5.9)	10(9.8)	45(44.1)	0(0.0)	1(2.0)	102(25.2)
총계	145(35.9)	54(13.4)	42(10.4)	124(30.7)	28(6.9)	11(2.7)	404(100)



2) 우선 제공되어야 할 대학진학 지원

장애학생이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대학진학 지원은 <표 20>과 같다.

<표 20> 우선 제공되어야 할 대학진학 지원 (n, %)

구분	대학진학 상담	대학진학 정보제공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장애인과의 통합생활 적응훈련	기타	계
시각장애	21(21.0)	32(32.0)	13(13.0)	31(31.0)	3(3.0)	100(24.8)
청각장애	20(19.6)	36(35.3)	25(24.5)	18(17.6)	3(2.9)	102(25.2)
지체장애	22(22.0)	36(36.0)	16(16.0)	24(24.0)	2(2.0)	100(24.8)
발달장애	20(19.6)	59(57.8)	18(17.6)	5(4.9)	0(0.0)	102(25.2)
총계	83(20.5)	163(40.3)	72(17.8)	78(19.3)	8(2.0)	404(100)

장애학생이 응답한 우선 제공되어야 할 대학진학 지원은 대학진학 정보 제공(163명, 40.3%), 대학진학 상담(83명, 20.5%), 비장애인과의 통합생활 적응훈련(78명, 19.3%), 진학지원 프로그램 운영(72명, 17.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보제공과 비장애인과의 통합생활 적응훈련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비슷한 응답을 나타냈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3)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요구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진학 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요구 (n, %)

구분	장애학생 특례입학 확대 및 의무시행	대학 진학지도 의무시행	장애학생 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개선	장애학생 대학진학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접근* 의무화	장애를 고려**한 교과서나 수험교재 확대	기타	계
시각장애	18(18.0)	24(24.0)	15(15.0)	23(23.0)	17(17.0)	3(3.0)	100(24.8)
청각장애	13(12.7)	28(27.5)	22(21.6)	20(19.6)	17(16.7)	2(2.0)	102(25.2)
지체장애	19(19.0)	26(26.0)	22(22.0)	20(20.0)	12(12.0)	1(1.0)	100(24.8)
발달장애	12(11.8)	28(27.5)	18(17.6)	42(41.2)	2(2.0)	0(0.0)	102(25.2)
총계	62(15.3)	106(26.2)	77(19.1)	105(26.0)	48(11.9)	6(1.5)	404(100)

\* 음성지원, 수화 및 문자통역, 화면확대 등

\*\* 점자, 음성, 수화통역, 난이도 조절 등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한 개선 요구로 대학 진학지도 의무시행(106명, 26.2%), 장애학생 대학진학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접근 의무화(105명, 26.0%),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개선(77명, 19.1%), 장애를 고려한 교과서나 수험교재 확대(48명, 1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각장애학생은 대학 진학지도 의무시행, 장애학생 대학진학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접근 의무화를 거의 비슷한 응답률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냈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학생은 대학진학지도 의무시행을, 발달장애학생은 장애학생 대학진학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접근 의무화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 IV. 논 의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과 요구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404명의 장애학생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및 발달장애를 고르게 표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지원 인력을 알아본 결과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및 지체장애학생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고 발달장애학생은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및 지체장애학생은 대학 또는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대학진학 정보를 찾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박홍식(2006), 서선진(2010), 김경화와 조현정(2013), 김경화와 김정민(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대학진학을 설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학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학 또는 학과를 결정하지만 대학진학 상담은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관련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발달장애학생은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발달장애학생의 부모나 선생님은 장애학생의 대학 또는 학과 결정과 대학진학 정보 제공, 대학진학 상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자폐성장애학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이소현 외, 2013)와도 비슷한 결과로, 발달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결정능력이 부족하고 의존적인 장애특성에 기인하는 결과로 이들의 대학진학과 관련해서는 부모 또는 담임교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대학 진학지도 의무시행이 제도화 되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와 담임교사가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학진학 매뉴얼 배포나 연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정보 수집방법을 알아본 결과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 학생 및 지체장애학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김경화, 조현정, 2013; 김경화, 김정민, 2014)와 일치하였다. 발달장애 학생은 대학 방문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와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학생이 대학진학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장애 학생을 위해 진학 정보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대학이나 사이트는 찾아보기 어렵다.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대학진학관련 정보는 학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 특례입학 시행 여부, 입시 방법 및 일정,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혜택 또는 지원 내용 등이다. 많은 대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시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해 대학진학 정보를 안내 하더라도 음성 지원, 수화 또는 문자통역, 화면확대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은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통합정보 사이트 운영 및 정보접근 의무화를 요구하였다.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부분의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장애학생의 대학입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교육과정이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비슷하였다. 청각장애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학교교육이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은철, 김진호, 2007). 학교교육과정이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및 발달장애학생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고, 지체장애학생은 대학입시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였다. 또한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의 하나로 장애를 고려한 교재나 수험교재가 없는 것을 지적하였고,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로 장애를 고려한 교재나 수험교재 확대를 요구하였다. 나수현(2003)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 활성화를 위한 고등부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에 대해 교사들이 높은 요구를 나타냈고, 교수방법 개선 필요를 제시했음을 보고하였다. 고등학교 장애학생이 특수학교(급)나 일반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학진학을 준비한다면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애가 중도화 및 중복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특수학교(급)에서 중도장애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과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공통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진학지도를 병행하는 것은 상이한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특수학교(급)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공받고 적절한 대학 진로지도를 받은 경우는 많지 않다(국립특수교육원, 2015).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적합한 교육방법이 적용(박승재, 1998)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배치기관에 관계없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방법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대학 진학지도 의무시행, 대학진학 교육과정 운영 등 정부차원의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고 대학 진학지도 교사 배치, 수화 및 문자통역 가능 전담인력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학생이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을 경험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시각장애 학생, 청각장애학생 및 지체장애학생은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및 지체장애학생은 사교육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김경화, 조현정, 2013; 김경화, 김정민, 2014)와는 달랐다. 발달장애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월등히 높았다. 장애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장애 특성에 맞는 사교육이 없는 것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장애유형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교육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으로 청각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은 재학하는 학교에서 제공되기를 희망하였고, 시각장애학생과 지체장애학생은 재학하는 학교와 전문학원에서 제공되기를 요구하였다. 장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노력은 비장애학생의 노력과 비교하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장애학생은 대학진학을 위해 정규시간 이외의 추가 지원이 제공될 것과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학교 등에서 사교육이 제공되기를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교육 체제 안에서 보충학습(박승재, 1998)이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원이 제도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애학생이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알아본 결과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시각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은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선행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의 진학 서비스 제공으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였다(정의석, 이해균, 김정현, 2011). 청각장애학생과 지체장애학생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한계와 지체장애학생의 이동 제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것과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장애학생이 장애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이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요구로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학상담과 예비대학 체험캠프가 가장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장애학생이 자신의 장애상황을 고려한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급학교 단위에서는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 수가 적어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교육청 차원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진학은 비장애학생 뿐 아니라 장애학생에게도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의의를 가진다(Roberts, 2010). 정부는 농·산·어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에 노력한다는 공교육 활성화 선언을 발표하였다(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외, 2009). 이는 장애학생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지원과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노력에 힘입어 교육과학기술부(2011)는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등 고등교육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장애학생의 선발 기준, 교육 과정 지원을 위한 여건, 대학교육 후의 진로결정을 위한 방안 등이다. 고등교육은 사회 통합에서 양질의 직업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Carroll, Blumberg, & Petroff, 2008; Hart, Grigal, & Weir, 2010) 대학진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는 전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전수조사하지 않았고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는 부모 등이 대상자로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향후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등 활성화 정책을 위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
- 국립특수교육원 (2010). **특수교육백서**.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국립특수교육원 (2015).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과정 분석**.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21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7권 4호)

- 김경화 (2014). 장애신입대학생들의 고등학교에서 제공받았던 대학 진학 관련 전환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4), 299-315.
- 김경화, 김정민 (2014). 1-100위권의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청각장애학생들의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9(1), 23-48.
- 김경화, 조현정 (2013). 명문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2), 219-243.
- 김주영 (2005).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제도와 방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형일 (2012). 장애대학생 대학생활 만족도 및 요구조사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165-190.
- 나수현 (2003).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학생의 대학진학 활성화를 위한 고등부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교사와 학생들의 지원요구 조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승재 (1998). 시각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근, 김정현, Hosp, J. L. (2013). 발달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실천적 과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231-257.
- 박은혜 (2011).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 제2회 장애인 고등교육 정책포럼**. 교육과학기술부.
- 박홍식(2006). 시각장애특수학교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서선진 (2010).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전환-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입시준비 및 대학적응 경험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4(1), 31-53.
- 오중운 (2008). 2009 대학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말한다. **조선일보**, 2008.6.25.
- 이소현, 이숙향, 윤선아, 김지영 (2013). 자폐 범주성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 요구 및 방안: 대학생 및 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8(3), 175-205.
- 이은철, 김진호 (2007).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551-574.
- 이지현 (2008).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발전방향. **교육정책포럼 칼럼**.
- 이효정, 이영선 (2011). 자폐범주성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전환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정서·행동장애연구**, 27(4), 279-305.
- 장진주 (2007).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지도 실태 분석.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정윤우 (2012).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대학진학지도에 대한 특수교육교사의 인식과 대학진학 결정 영향 변인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3(1), 213-232.
- 정의석 (2010). 시각장애학교 고등부학생의 대학진학지원 서비스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정의석, 이해균, 김정현 (2011). 시각장애학교 고등부학생의 대학진학지원 서비스 실태 및 개선 방안. **시각장애연구**, 27(3), 113-145.
- 정주환, 한경근 (2012). 고등학교 완전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진학지도 현황과 개선 방안. **장애와 고용**, 22(4), 77-111.

- 조성혜 (2014).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의 특성화 방안. **법과 정책연구**, 14(4), 1607-1640.
- 최성규 (2012). 발달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방안에 대한 특수교사와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비교. **지적장애연구**, 14(2), 201-223.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5). 전국 장애대학생 통계 조사.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09).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 한혜경 (2009).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대학진학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요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Carroll, S., Blumberg, R., & Petroff, J. (2008). The promise of liberal learning: Creating a challenging post-secondary curriculum for youth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 of Exceptional Children*, 40(9), 1-12.
- Hart, D., Grigal, M., & Weir, C. (2010). Expanding the paradigm: Post-secondary education options for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 of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5(3), 134-150.
- Heslop, P., & Abbott, D. (2007). School's out: Pathways for you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om out-of-area residential schools or colleg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1(7), 489-496.
- Roberts, K. D. (2010). Topic areas to consider when planning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post secondary education for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Focus of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5(3), 158-162.

## Demand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College Entrance Preparation

Jeong, So-Yo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sabled students' college preparatory preparation and needs. The study enrolled 404 students with disabilities who have successfully enrolled in universities through college preparation in special schools, special classes, and regular high schools. We investigated a range of explanatory variables that might affect disabled students' college entrance: the determinants of majors, preparation period, information gathering, support providers, connectivity with school curriculum, private education, support programs, and difficulties in preparation for college. We also examined the needs for supporting college entrance. Results showed different experiences and difficulties for students based on disability. In terms of college entrance support programs, students with visual and hearing impairment and physical disabilities required the highest level of admission consulting;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quired a pre-college experience camp the most. Support policies that should be initially provided for college entrance also differed: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 requested information on college entrance and adjustment training for integrated living; those with hearing impairment and physic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quested information on college entrance. To improve preparation for college entrance, visual impaired students requested mandatory enforcement of guidance on college entrance, operation of a web site with information on college entrance, and compulsory information access the most.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physical disabilities requested mandatory enforcement of guidance on college entrance, while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quested operation of a website with integrated information on college entrance and compulsory information access the most.

**Key Words :**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llege entrance,  
Support programs for college entrance.

---

논문 접수: 2016. 09. 05 심사 시작: 2016. 09. 10 게재 확정: 2016. 10. 12